

“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

■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수십억의 인간들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들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뿐 아니라 환경과 피조물들을 보시고 아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한 모든 부분도, 실제적인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사건, 피조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아신다.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그는 잊어버리거나 틀리거나 변하지도 않으시고, 못 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주께서 나를 살피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한 말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 측량할 수 없다고 찬양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한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세오스(Theos)라 한다. 이 말은 Theisthai(세이스타이)에서 온 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all-seeing One)이라는 뜻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본질상 전지(全知)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보실 수 없다면 시각장애를 갖고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도 맹인 우상은 만들지 않는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보시고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의 눈도 속이기 쉽지 않는데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완전히 꿰고 속을, 행동과 마음을 계속 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내가 나를 본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기술과 재능을 보고 해석하려는 것이 인간이지, 하나님처럼 내 마음이 조성되기 전, 그 마음의 방향까지 정확하게 읽는 분은 하나님 외엔 아무도 없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에 관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시고 알고 계신다. 약점이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와는 다르다. 누가 열쇠 구멍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불편해 하고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알려저서는 안 될 비밀도, 죄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니체는 살신(殺神)을 하겠다고 했으나 제가 미쳐 죽었다. 1984년 G.Orwell의 미래 세계를 내다 본 Big Brother의 진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할 것 같으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는다.

사람의 오해와 모함으로 울분과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시으며, 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피보셨으므로 나를 익히 아셨나이다.” 한 시인처럼 어차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두려워 말고, 그 앞에 감추인 죄를 회개하고, 그만 의지하면 감사와 찬양이 터질 것이고, 위로와 기쁨이 넘칠 것이다.

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2018년 7월 14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신년주일입니다.

감사와 은혜의 2022년을 떠나보내고, 소망의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 2, 3부 예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후에는 결-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30101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중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는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경,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리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경이로운 새 출발 ”

■ 출 3:1-12

오늘 본문 말씀은 미디안 광야로 추방되어 40년을 목동으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 새 출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광야생활 청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통 중의 동족들을 구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새 출발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것이 그와 민족 전체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새 출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출발의 모습도 정돈해 보겠습니다.

1. 관심사의 전환입니다.

40세 젊은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몰려나온 망명객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서 평온한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모세의 관심사가 바뀌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모세는 광야에 서식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관심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경이적인 새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에서 하잘 것 없고 버려지고 실패한 자가 되어버린 자기 삶에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모세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의 가는 길에 끝없는 기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고 신앙의 부흥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출발을 경이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것입니다.

2.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신분을 하나님 백성의 본래 위치로 회복시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동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람의 거룩한 신분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삶이나 현재의 신분에 대하여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도하지 말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날의 희망을 바라는 사람은 구태에 물든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벗어야 할 신발이 무엇이며 옛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버려야 우리가 신선하고 소망 넘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3. 돕기 위해 희생하라

모세에게 ‘이제 가라...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동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성장시키는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적 현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현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인격적 침해를 당하면 견딜 수 없이 분노합니다. 자기 이익여부가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의 기준이 되면 이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런 이기적 생각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요인입니다. 새해를 돕기 위해 출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돕기 위해 출발할 때 경이적 출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해 관심사를 하나님께 전환합니다. 낡고 병든 것을 버립니다. 서로 돕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때 우리의 한 해를 경이적 축복들로 채워주시길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차영도 장로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이강인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1:1-2, 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14(1, 4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94(새해2)...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4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50...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출 3:1-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경이로운 새 출발”... 손달익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레 자
 * 찬 송 Hymn143...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13:2-3 인 도 자
 찬 송 620 다 합 께
 기 도 홍창훈 집사
 찬 송 287 다 합 께
 성 경 왕상 14:1-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예견된 종말” 설 교 자
 * 찬 송 516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장호립 권사 II부: 최중희 권사
 성 경 왕상 14:21-3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화평케 하는 길”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신아령
 설 교 손달익, 김익환 목사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설 교 조원영 목사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홀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 회 소 식

모임

1. 공동의회 / 1일(주) 찬양예배 후에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알림

-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신년감사 예배 / 우리 교회는 오늘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이영문	1-9	아브라함	본인	김진이1	7교구	청년부	백경화
임범철	6-2	모세	본인	이신재2	7교구	청년부	최유현
김승옥	6-2	한나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장례

- 故 박상임 권사(5교구 장낙희 은퇴권사의 모친, 성준경 은퇴장로의 장모, 9교구 성기연 집사의 외조모) / 12월28일(수) 별세, 12월30일(금) 발인
- 故 송갑순 권사(8교구) / 12월29일(목) 별세, 1월1일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862명	652명	2,514명	391명	1,589명

시작하는 사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말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세밀한 계획과 필요한 자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그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적인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기희생을 각오할 수만 있다면 일단 일은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의 흉내나 내고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안일주의에 빠져 인생을 소일하기보다는 창조적 인물이 되어 무슨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 해서 할 일, 못할 일 다 시작해 놓고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하되 옳은 것을 시작하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일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